

한일월드컵 전야제 깜짝 이벤트

목어로 세계평화 발원



중생을 제도하고 게으른 수행자를 경책하며, 협동심과 신의를 상징하는 목어가 월드컵 전야제에서 세계평화를 발원하는 타악기로 사용된다. 박찬수씨는 잉어가 용이 되는 '어변성용'을 상징화해 목어의 몸은 물고기로, 머리는 용으로 제작했다.

한·일 월드컵 전야제에 세계평화를 발원하는 타악기로 목어가 사용되는 깜짝 이벤트가 연출된다. 박찬수(목아박물관장·중앙문화재단) 목조각장 108호씨가 조각한 이 목어들은 한화목을 통째로 다듬어

축구공 여의주 문 용·드리블하는 잉어 등 박찬수씨 대형3개 포함 모두 35개 조각

잉어형상을 만들고 속을 파내 소리가 울리도록 설계돼 있다. 잉어는 잠을 자지 않고 '어변성용'(魚變成龍·물고기가 변해 용이 된다)한다해 우리 민족이 민화로 잉어그림을 그려 집안에 걸어두고 안녕과 구복을 기원했다는 믿음에서 이번 행사의 상징으로 채택됐다. 이번 전야제 무대에 오르는 목어는 길이 320cm짜리 1개와 300cm짜리 2개 등 대형목어 3개와 220cm짜

리 32개를 포함해 총 35개가 제작됐다. 대형목어 3개는 '천지인(天地人)'을 상징하며, 32개는 월드컵 본선 진출국의 숫자를 의미한다. 형상도 모두 제각각이다. 우선 대형목어는 잉어가 용이 되는 모습을 조각했다. 또 32개의 목어는 잉어가 축구공을 엉덩이로 차는 것을 비롯해 잉어의 혀로 축구공을 받는 모습, 잉어가 축구공을 물고가는 형상 등 잉어 32마리가 축구하는 모습을 기발한 상상력을 동원해 재미있게 만들었다. 전통적으로 목어의 입에는 여의주가 물려 있지만 이번엔 월드컵을 상징하는 축구공을 물렸다.

봉축연합대법회

부산시 봉축위

부산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오)는 12일 부산역 광장에서 불기 2546년 봉축 연합대법회를 봉행했다.

식전행사로 열린 시민문화축제와 영산재, 육법공양에 이어 열린 연합대법회에는 안상영 부산시장,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을 비롯 5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부대회장 일현경사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범어사 학인스님들의 법고, 종성, 예불, 상임부대회장 정각스님의 발원문, 수석부대회장 도현스님의 대회사 순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성오스님은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사부대중 모두가 정진하자"고 법론했다. 3부 제등행렬에서는 3천여 불자들이 밝혀 든 등등이 부산진시장, 부산불교방송국, 서면로타리 구간의 거리를 수놓았다.

태고종 중화대중사 열반 7일 옥천사에서 다비식

태고종 승정 옥운당 중화대중사 영결식이 7일 강릉 옥천사에서 태고종 강원교구총무원장으로 엄수됐다. 오전 10시 명종을 시작으로 봉행된 영결식에는 5백여 명이 동참, 사바세계를 떠나는 중화대중사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다.

삼귀의례, 반야심경, 추도묵념, 행장보고, 육성근행, 영결사, 법어, 조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된 영결식에서 백은 강원교구총무원장은 영결사를 통해 "대중사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 종도 모두는 부종수교의 일념으로 화합을 하고 단결을 이어나가는데 정진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지난 5일 세수 81세 법랍 60세로 열반에 든 중화대중사는 1942년 경복 고운사로 출가한 이후 대교과를 졸업하고 범어사 등 선원에서 인거를 했으며 중앙종회의원, 강원교구 총회회장, 강원교구총무원장등을 역임했다.

회당대중사 탄생100돌 기념사업선포식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10일 흥본산 흥인원에서 '회당대중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선포식'을 봉행했다.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식에서 효암 통리원장은 "참어·회합·회향의 기념사업정신은 회당대중사의 가르침이자 중흥정신을 승화하는 것"이라며 "사부대중 모두가 동참 기념사업을 원만히 성취하자"고 말했다. 한편 선포식에 앞서 식전행사에서 회당대중사 다큐멘터리 영상물 상과 타악 퍼포먼스 공연, 국악관현악단 공연 등이 진행됐다.

월산대중사 부도탑건립 개토제



불교사 조심을 지냈던 성림당 월산대중사의 부도탑과 비문 건립을 위한 개토제가 6일 경주 불국사 경내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법주사 조심장 스님과 조계종 호계원장 월서스님, 월성스님 등 금요문종의 원로 스님과 성타, 종상, 장주 스님 등 월산스님의 직계제자를 비롯 재가신도 및 이식 경주시장 등 5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107후에는 생전의 큰스님 모습 그대로 장엄한 위엄을 갖춘 부도탑과 비문의 공을 이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도탑과 비문의 전체 설계는 동국대 홍경교수가 담당했으며 고은 시인이 비문을 썼다.

부산 두곳서 대형합창제 열려



부산불교합창단 연합회가 13일 부산문화회관 강당에서 2002부산합창제 성공개회를 기원하며 제4회 부산불교합창제를 가진데 이어 152는 삼광사가 제1회 봉축음악제를 개최했다. 부산불교합창제에서는 통도사부산포교원, 한마음선원을 비롯 17개 사의 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의 공연과 정음스님의 독창으로 '육바라밀' 등 다채롭게 펼쳐졌다. 한편 삼광사 지관전 불교문화회관에서 열린 봉축음악에는 부산불교연합합창단 등이 참가해 '이 세상에 단 한번' '묘법연화' 등의 찬불가를 공연했다.

동자승·美어린이들 '리틀 월드컵'

경기후 축구공 燈만들기등 불교체험

14일 오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설치된 길이 14m의 축구장.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미국 어린이들과 흰색 티셔츠에 조끼 승복을 입은 동자승들이 축구공을 쫓으며 이리저리 뛰었다. 공보다 신발이 더 멀리 날아가기도 하고, 자기편 골문을 향해 멋진 드리블을 하는 모습으로 관중들에게 한아름 웃음을 선사했다.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고 월드컵 성공기원을 위해 조계사가 마련한 '리틀 월드컵'.

이날 경기에 참가한 미국 어린이들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서울 흥은동 예수그리스도교회 어린이들로, 가족들까지 함께 참석해 화합과 축제를 분위기를 연출했다. 30으로 미국팀이 이긴후 양국 아이들은 서로 악수를 나눴으며, 동자승들은 미국 어린이들에게 "성불하세요"라고 말하며 무정을 나눴다. 동자승팀의 도향스님(6. 김재민)은 "뛰는 게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고 말했고, 미국팀 윌리엄스(6)는 "이겨서 기분이 좋다"며 웃어보



조계사 동자승들과 미국 어린이들이 열심히 공을 쫓고 있다. 동을 만들며 불교화를 체험하기도 했다. 미국팀 어린이들은 경기가 끝난 후 동자승들과 함께 어울려 축구공

"만물이 서로 의지·공존 연기사상 사회복지 상호부조 윤리와 상통"

불교복지연구원 세미나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원장 해충) 주최로 10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불교사회복지사상과 실천과

제'라는 주제로 열린 제2차 학술세미나에서 사회복지의 이론적 근거를 불교 사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시도됐다. 이날 두승복지관 관장 지현스님은 "살의 현장에서 부딪치는 괴로움

의 현상을 자비, 복덕, 청정, 지혜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곧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택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기의 상의상관 사상은 사회복지의 사회연대 및 상호부조의 실천 윤리와 상통한다"고 주장했다. 금정구종합복지관 관장 정여스님은 불교사회복지의 현실에 대한 반성과 대책을 촉구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부처하는 서울 종로구 단, 9월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명창동 45번지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마음 맑으면 은누리가 부처님나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을 쉬지 않으면 부처님 세계에 들 수 없다.”

본 선원은 불법의 궁극적인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중생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 일동

법회 본래로 부터 밝혀져 있는 마음을 제대로 깨우쳐 부처님의 세계에 들으려 그 마음을 공고이 하는 신명법회를 여러가지 형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법회시간** 화요일마다 매주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정기법회 넷째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법원법회 매주수요일 오후 7시 / 어린이법회 매주토요일 오후 2시 / 학생법회 매주토요일 오후 4시 / 청년법회 매주화요일 오후 7시 / 초하부 보름 정기법회 음력 초하부보름 오전 10시 30분.

법원 본교의 전통적인 탄을 설치하여 조상님의 육신을 모시는데 아니라 영혼을 모심으로 조상님을 올바르게 모시게 되고 직계 대대로 영리할 수 있어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이바지하고, 공헌원사이라 신성하고 헌신감이 듭니다.

위치 국도 25호선중에 진영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창원 I.C에서 400여 미터 떨어진 육교에서 금산 초등학교 정문을 지나 삼양타일 공장방면으로 300여 미터 걸어오다보면 왼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소는 인터넷사이트에 있는 지도를 참고하세요.) URL: (http://tree.hanmaum.org/jungbu)

주소 50521-경상남도 진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055) 845-9900/342-8639 · O Fax 055) 346-2179